

현장시선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언어학박사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는 1980년 대학에 입학하던 나이에 유권자가 되었으나 1984년 졸업할 때까지 투표해보지 못했고 이후 1996년까지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투표해본 적이 없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용지에 도장 찍고 기표함에 용지를 넣었던 감격스러운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인 투표를 기권해본 적이 없다.

과 나라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거는 기대 역시 여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과 공약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통해 오래 묵은 문제와 현재 뜨거운 안건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다.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나 갈등을 마주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뚜렷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해맑은 어린이, 소망이 자주 바뀌어도 즐거운 청소년,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 노년이 불안하지 않은 중장년, 사회적 보살핌에 소외되지 않은 노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희망하며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예술인들

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쉽게 풀이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나 이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더 바랄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유권자는 행복해지고 그들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임기 동안 맡겨준 권력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인 입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이라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들 때문에 연이어 쏟아지는 뉴스에 어떨 때는 눈과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럽다.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다 보니 다투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협하기도 한다. 이런 소란스러움을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관찰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는 면이 있다. 서로 다른 방법론과 논리를 펴는 주장의 배경을 헤아려보기도 한다. 선거는 이 소란스러움의 축제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 축제의 차림표에 올려진 여러 정책과 공약을 두루 살펴보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보자.

사설

공사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엇그제 광주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충격적이다. 마치 폭격을 맞은듯이 외벽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내렸다.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런 사고가 났는지 믿기지 않는다. 낡은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외벽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록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지만 결코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제주지역 공사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에서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대규모 개발사업장 총 27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에 이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도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

자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조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7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5000㎡ 이상 신축 공사장 5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긴급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사고는 공사장 등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유없이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닌 사고다.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도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빚어진 것이다. 그만큼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전국 풀씨수준 도·도교육청 민원서비스 '개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굴욕적인 결과를 받았다.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풀씨 수준', 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풀씨'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행정이 줄곧 내세운 '도민속으로', '민원 최우선' 행정을 무색케 한 결과다. 인력·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서비스는 '바닥권'인 현실에 도민사회 충격·분노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종합평가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 대상으로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평가를 했다.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민

원서비스 실적 평가(5등급)를 한 결과 제주도는 '라'등급을, 도교육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도가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풀씨'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행정이 줄곧 내세운 '도민속으로', '민원 최우선' 행정을 무색케 한 결과다. 인력·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서비스는 '바닥권'인 현실에 도민사회 충격·분노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종합평가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 대상으로 민원행정 체계, 민원제도 운영, 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평가를 했다.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민

그래픽 뉴스

고령인구 비중 및 국민연금기금 전망

고령인구 비중 전망



국민연금기금 전망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연합뉴스

열린마당

서귀포 창작 산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이중섭미술관은 이중섭 화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작가미술관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서귀포시는 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 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2기까지 84명의 입주작가들이 이곳 창작스튜디오를 거쳐 갔으며 이들 중 많은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활

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라는 공간은 예술의 섬에 걸맞게 창작자들에게 무한한 영감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라 생각된다. 이런 기대와 함께 매년 입주작가 모집에 전국의 유망한 작가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13기 입주작가로 선정된 4명의 젊은 작가들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매진할 작업공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교육프로그램 참여, 입주작가 전시, 지역예술인과의 교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의 청정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껏 자신의 예술혼을 펼쳐나갈 작가들의 활동이 사투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고난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국민화가 이중섭 화백의 창작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인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조상윤.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현수(향년 9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도정소식.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상·하수도 요금 인상.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